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평가도구란**, 평가하고자 하는 사건이나 현상을 관찰·조사하거나 측정할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다. 특히, 사회 현상의 비가시적인 특성을 측정할 때 사용된다. ‘교육평가’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고, ㉡**목표성취모형**을 제시한 것으로 잘 알려진 타일러(R. Tyler)를 필두로 한 많은 교육학자들은 ㉢**교육평가도구**로서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 세 가지로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를 이야기한다. 먼저, 타당도란 평가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평가도구가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다음으로, 신뢰도란 측정에 오차는 없는지에 관한 것으로, 측정의 일관성, 안정성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객관도란 평가자가 얼마나 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 대상자를 대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나) 타당도는 내용타당도, 예언타당도, 공인타당도, 구인타당도 등이 있다. 그중 내용타당도란, 평가자가 평가하고자 하는 바를 얼마나 충실히 평가하는 지에 대한 것이다. 수능의 경우에는 고교 ㉤**교과과정**이 이의 기준이 될 것이며, 중학교 내신 시험이라면 가정통신문에 적혀 있는 시험 범위가 이의 기준이 될 것이다. 다른 하나인 예언타당도란, 검사 결과와 평가 대상자의 미래 행동이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만일 교내 수학 경시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은 내신 수학 시험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학생이 내신 수학 시험에서 평균 이하의 성적을 받았다면, 교내 수학 경시 대회 시험이나 해당 내신 수학 시험 중 한 평가도구는 예언타당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 공인타당도는 새로운 검사 도구를 제작하였을 때 제작한 도구의 타당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타당성을 보장받고 있는 검사와의 유사성 혹은 연관성 등을 비교하여야 한다. 또한, 구인*타당도는 어떤 평가도구가 측정하려 하는 심리적 특성에 대해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이를 기준으로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구인을 얼마나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다) 신뢰도에는 재검사신뢰도, 동형검사신뢰도, 반분신뢰도 등이 있다. 이 중 재검사신뢰도란, 한 평가도구를 동일 집단에게 여러 번 이용했을 때 얼마나 비슷한 수준의 결과를 얻는지에 관한 것이다. 만일 두 검사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이 너무 길면 응답자가 서로 다르게 성숙하여 진점수**가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실제보다 낮게 나올 수도 있고, 시간적 간격이 너무 좁은 경우 기억에 의해 반응하는 ㉥**이월효과**가 크게 되어 신뢰도가 실제 보다 높을 수도 있다. 따라서 2주~4주 정도의 텀을 갖고 재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른 하나인 동형검사신뢰도란, 동일한 평가 기준에 기반을 둔 비슷한 난도의 두 가지 평가도구를 제작하고, 이를 평가 대상자들에게 사용할 때에 얼마나 두 평가도구의 결과가 일치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1994학년도 수능**에서 알 수 있듯이, 두 개의 평가도구를 동일한 내용에 근거하여 동일한 난이도로 제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 외에, 반분신뢰도는 하나의 검사를 실시한 후에 두 개의 동형검사를 동시에 실시하였다고 보고, 한 검사를 두 개의 동등한 부분으로 나누어 따로 채점하여 두 개의 반분된 검사간의 상관관계를 얻은 후, 이를 전체검사에서 기대되는 상관관계로 수정한 것이다.

㉡ 객관도는 평가자 신뢰도라고도 하며,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는 도구의 객관화, 둘째는 평가자의 소양, 셋째는 기준의 구체화, 넷째는 다인수(多人數) 평가, 다섯째는 오류의 제거이다. 객관도는 크게 채점자 간 신뢰도와 채점자 내 신뢰도로 나뉜다. 전자는 한 문항에 대해 여러 사람의 결과가 일치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후자는 한 채점자가 같은 문항에 대해 여러 번 채점한 결과가 일치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또한 객관식 문제의 경우 채점자가 개입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객관도는 객관식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주관식 문제를 다룰 때에만 이야기한다.

㉢ 타일러의 목표성취모형은 '구체적 ㉠목표 설정 → 학습 경험 선정 → 학습 경험의 조직 → 학습 성과의 평가'로 구성된다. 즉, 구체적 목표 설정이 평가도구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면, ㉡학습 성과의 평가 역시 잘못될 가능성이 크다. 타일러는 평가 결과를 통해 교수법, 교과과정 등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낼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다시 말해, 평가도구가 적절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의 교육에 숨어있는 문제점들이 ㉣밝혀지기 어렵고, 이를 해결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평가도구의 타당도·신뢰도·객관도를 높이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미래의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다.

*구인 : 검사도구에 반영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인간의 어떤 행동 특성
 **진점수 : 피험자가 측정오차 없이 검사에서 얻을 수 있는 이론적 능력점수

22.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교육평가도구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 기준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 ② ㉢ : 타당도를 네 가지로 세분하고, 이중 일부를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 ③ ㉣ : 신뢰도를 세 가지로 세분하고, 특정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 한계가 존재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 ④ ㉤ : 평가자 신뢰도의 특성 및 이를 높이기 위한 다섯 가지 조건에 대해 말하고 있다.
- ⑤ ㉤ : 교수법의 결점을 발견하기만 하면 평가도구의 적절성을 높일 수 있음을 논증하고 있다.

23. <보기>의 ㉠의 입장에서 ㉡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잠재적 교육과정이란, 교육과정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의도하고 계획 세운 바가 없으나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은연중에 가지게 되는 경험을 뜻하며, 교육학자 ㉠잭슨(P. W. Jackson)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한 표현이다. 잭슨을 포함한 잠재적 교육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학자들은, 피교육자들이 이를 통해 교육과정 하에서 배우는 지식 이상의 가치를 지닌 것들(정의·가치·도덕·규범 등)을 습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① 목표로 설정하지 않은 부분이 피교육자에게 주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 ②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을 교육과정에서 계획적으로 배제하였다.
- ③ 목표의 달성에 초점을 맞춘 결과, 그 과정을 소홀히 할 수 있다.
- ④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⑤ 잠재적 교육과정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24.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의 상위 개념이다.
- ② ㉢의 ㉣가 낮을 경우 ㉤는 ㉥에 존재하는 ㉦의 발견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 ③ ㉧는 ㉣를 높이는 데에 장애가 되는 요인이다.
- ④ ㉣는 ㉢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다.
- ⑤ ㉦가 ㉥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5. <보 기>는 ㉢에 관한 설명이다. 위 글과 <보 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다음 중 적절한 것은?

—<보 기>—

현행 대입 시험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기존 대입 시험인 학력고사를 대체하기 위하여 1993년부터 시행되었다. 1993년에 실시한 1994학년도 수능은 두 번(8월 20일, 11월 16일) 응시한 후 자기에게 유리한 한 회의 성적만 택하여 대학에 제출하는 방식이었으나, 두 회간의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여 많은 비난을 받았다. 당시에는 ‘본고사’라고 불리는 대학별 시험이 별도로 존재하였는데, 1회에 고득점을 올린 학생들은 본고사 준비에 열중할 수 있었고 그것이 결과론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반면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2회 수능을 준비하였는데, 2회 난이도가 1회보다 어려워서 고득점을 받기 어려웠고, 당시에는 주로 원점수로 대학에 지원하였기 때문에 1회에 고득점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여러모로 손해를 보았다. 이것이 비난의 주요 원인이었으며, 그 결과 다음 해부터는 수능이 한 번로 축소되었다.

- ① 1994학년도 수능은 공인타당도가 높은 평가도구이다.
- ② 1994학년도 수능은 예언타당도가 높은 평가도구이다.
- ③ 1994학년도 수능은 동형검사신뢰도가 낮은 평가도구이다.
- ④ 1994학년도 수능은 재검사신뢰도가 높은 평가도구이다.
- ⑤ 1995학년도 수능은 1994학년도 수능보다 객관도가 낮아졌을 것이다.

오르비 IMIN 633077 26. 다음 중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더 나은 교육환경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 ② 동일한 대상에 대한 평가도구를 주관식 문제에서 객관식 문제로 바꾸는 것은 이에 해당한다.
- ③ 교육과정을 개정할 경우 다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④ ‘평가도구의 적절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⑤ ‘학습 경험의 조직’을 거치지 않을 경우 교수법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27.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과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진 것은?

—<보 기>—

‘열려지다’는 ‘열다’라는 동사에 피동을 나타내는 접미사 ‘-리-’와 피동을 나타내는 보조동사 ‘-(어)지다’가 붙어서 만들어졌다. 이러한 경우를 ‘이중피동’이라고 이야기하며, 이는 문법적으로 옳지 않다. 그러나 ‘밝혀지다’의 경우, ‘밝다’라는 동사에 사동을 나타내는 접미사 ‘-히-’와 피동을 나타내는 보조동사 ‘-(어)지다’가 결합하여 만들어졌다. 이러한 경우는 이중피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 ① 당겨지다 ② 알려지다 ③ 잊혀지다 ④ 찢겨지다 ⑤ 덮혀지다

정답

[22~27] 교육학(교육평가도구의 적절성)

22. ⑤

23. ①

24. ④

25. ③

26. ②

27. ②